

여수 정박 화물선 기름 유출사고

3월3일 3355톤급 캄보디아 선적 ... 연료유 공급중 부주의로 흘러내려

3월3일 오후 1시40분경 여수시 낙포동 사포 2부두에 정박 중이던 3355톤급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 Y호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기름 유출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화물선 인근에 길이 200m, 너비 2m 가량의 기름띠가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정과 방제정을 동원해 방제 작업에 나서 1시간30여 분만에 기름을 모두 제거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던 도중 부주의로 갑판으로 흘러내린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기름 유출량과 사고 경위 등이 확인되는대로 선박 관계자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04>